

해외건설 인사이트 INSIGHT

2023 Vol.1

2023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및 진출 전략

I.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II. 세계건설시장 전망

III. 해외건설 시장 환경 변화

IV. 결론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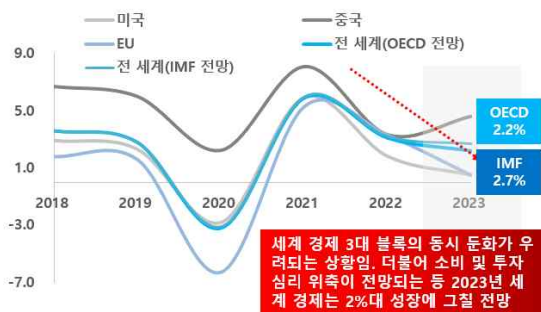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참여 연구원의 주관적인 견해로, 해외건설협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I. 2023년 세계 경제 전망

1. 세계 경제 전망

- IMF 등에 따르면,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경제 3대 블록의 동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더불어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이 전망되는 등 2023년 세계 경제는 2%대 성장에 그칠 전망
- IMF는 '22년(3.2%) 대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미국 등 선진 경제권은 1.1%, ASEAN-5 등 신흥 경제권은 3.7% 수준으로 예상함
- OECD는 세계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0.5%), 중국(4.6%), EU(0.5%)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못한 공급망 상황, 주요 신흥국 및 저개발국가의 높은 부채 수준은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단위: %)



[출처 : IMF, OECD, ICAK 정책지원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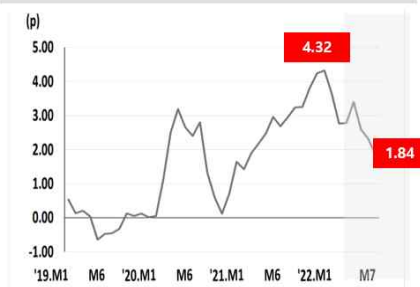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출처 : IMF, ICAK 정책지원센터 등]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등했던 공급망압력지수는 점차 감소해 2020년 11월까지 감소세가 유지됨.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4.32까지 급등 이후, 점진적 감소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대비 부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선진국은 GDP 대비 33%p, 중국 22%p,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은 16%p, 저개발국들은 8%p 증가
- 특히 신흥국과 저개발국의 경우,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욱 큰 부담이 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전망(단위: %)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주 : 평균값은 제로(0).

[출처 : FRB of New York,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부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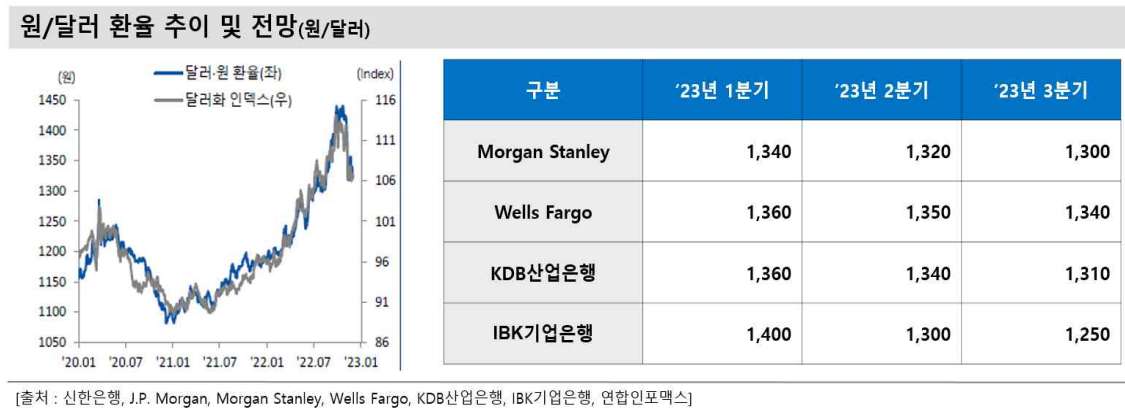
주: 1) 짙은 파란색은 비금융 민간기업, 하늘색은 가계, 노란색은 공공 부문의 부채를 나타냄. 2) GFC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의미.
자료: IMF,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2/04/11/blog041122-dangerous-global-debt-burden-requires-decisive-cooperation> (검색일: 2022. 11. 7).

[출처 : IMF, KIEP, ICAK 정책지원센터 등]

2. 원/달러 환율 전망

- Morgan Stanley 및 Wells Fargo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미국 기준 금리 사이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1,310~1,360원 수준으로 전망됨
- 기관별로 원/달러 환율의 구체적 전망치는 상이하나 '상고하저'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 '23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등 긴축 속도 조절, 유럽 등 주요국의 긴축 전환 등은 달러화 강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화의 점진적인 약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상황 및 한국의 수출입 동향 등이 복합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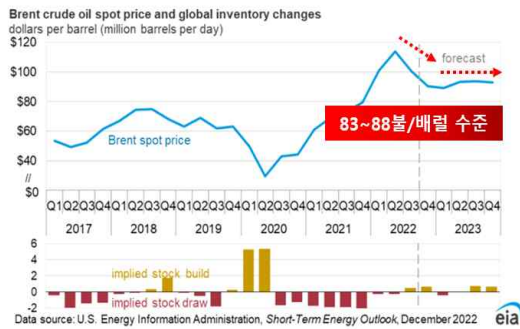


3. 국제 유가 전망

-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3년 국제 유가는 '22년 2~3분기의 90~110불 대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1년 2분기 급락했으나,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임. '22년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급등 현상으로 고유가 기조가 나타남
- '23년 분기별 WTI 기준 유가 전망을 보면, 1분기 83.0불, 2분기 87.4불, 3분기 88.0불, 4분기 87.0불 수준임. 즉 80불 중후반대에서 국제 유가의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단,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 성장 둔화, 주요국의 경기 침체, OPEC+의 추가 감산 여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국제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3년 국제유가 전망(불/배럴)



구분	'21년	'22년	'23년(f)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WTI	68.2	95.2	83.0	87.4	88.0	87.0
Brent	70.9	101.5	89.0	93.4	94.0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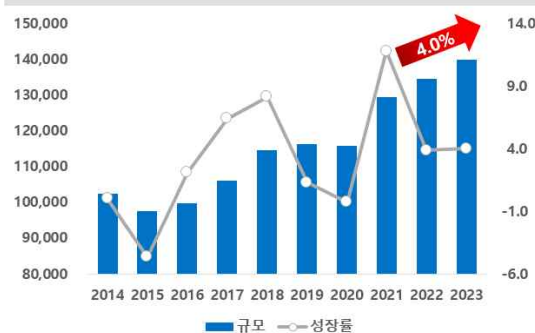
[출처 : EIA('22.12), ICAK 정책지원센터]

Ⅱ. 세계건설시장 전망

1. 세계건설시장 규모 전망

- 글로벌시장조사기업 IHS Markit에 따르면, '23년 세계건설시장은 '22년 대비 4.0% 성장한 13조 9,824억불로 전망
- 각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 정책 등 성장 요인 및 금리 인상을 비롯한 성장 저해 요인이 혼재된 시장이 지속될 전망
- (성장 요인) ①각국의 공공 인프라 우선 정책, ②고유가 지속 시 중동 산유국의 발주 환경 개선, ③코로나 엔데믹 전환기에 따른 건설시장의 점진적인 정상화
- (성장 저해 요인) ①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 ②인플레이션 압력, ③지정학적 리스크
- (지역별 성장률) 6개 지역 중 중동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14.4%)로 전망됨. 다음으로 아프리카(8.2%), 중남미(7.4%), 아시아(4.5%), 북미·태평양(2.6%), 유럽(0.8%) 순으로 성장이 예상

세계건설시장 규모·성장률 추이 및 전망(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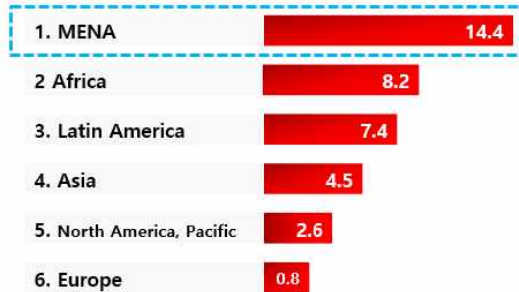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단위: 억불, %)

구분	2022	2023	성장률
중동	6,441	7,367	14.4
아시아	67,263	70,319	4.5
북미·태평양	24,491	25,125	2.6
아프리카	1,149	1,244	8.2
유럽	29,386	29,632	0.8
중남미	5,715	6,136	7.4
합계	134,446	139,824	4.0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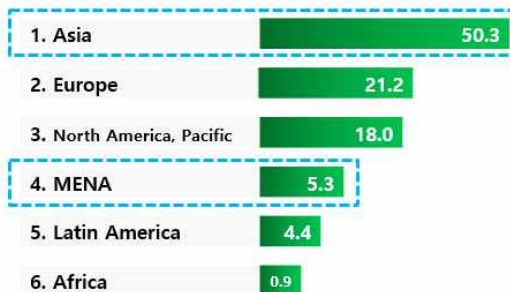
- (지역별 비중) '23년 중동 및 아시아 비중은 '22년 대비 각각 0.5%p, 0.3%p. 증가하나, 북미·태평양 0.2%p. 감소

지역별 성장률 전망(단위: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지역별 비중 전망(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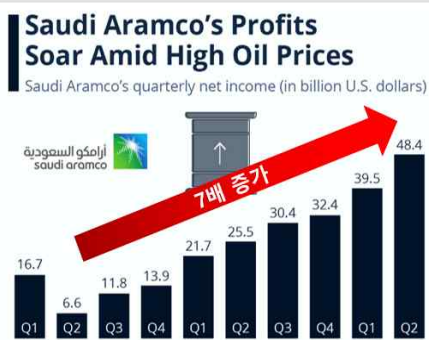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2.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있는 중동 건설시장

- '오일머니'가 유입되고 있는 중동 건설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중동 산유국은 최근 70~80불 수준의 국제유가에 따라 재정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가 폭락시기인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중동 주요 발주처의 수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됨. 높아진 수익은 대규모 시설 투자(Capital Expenditure, CAPEX.)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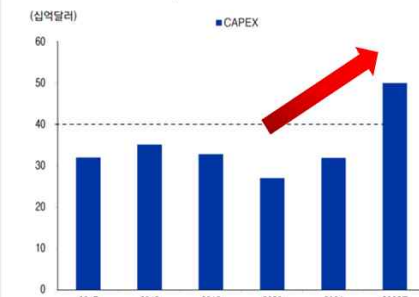
고유가에 따른 Aramco 수익 증가 추이



[출처 : Aramco, Statista(2022.8), ME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22.8)]

Aramco, CAPEX. 계획 상황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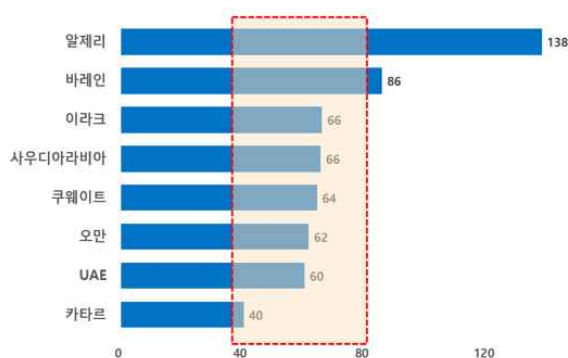
사우디 Aramco CAPEX, 3/20 \$40bil—\$50bil 가이드선 상황



[출처 : Aramco, Statista(2022.8), MEED,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22.8)]

- 한 예로 사우디아라비아 Aramco의 경우, '20년 2분기 이익은 66억불로 대폭 감소했으나, 수익이 점차 확대되며 올해 2분기에는 484억불로 '20년 2분기 대비 7배가 증가함. 이에 따라 기존 400억불의 CAPEX. 계획을 500억불로 상향 발표하며 메가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고 있음
- 대형 플랜트 시장의 전방 산업인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의 수익 성장세도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임
- Exxon Mobil, Chevron의 올해 2분기 수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3~4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이는 '21년부터 CAPEX.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다소 시차가 있겠으나 향후 정유·석유화학공장을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사업의 발주가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국가별로 살펴보면, 재정 균형 유가가 80불 이하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리비아, 오만, 쿠웨이트 등에서 재정 지출 확대 및 대규모 인프라 발주가 기대됨

산유국의 재정 균형 유가



[출처 : IMF]

중동 주요국의 시장 규모·수주 현황

구분	'86~'21 수주액(억불)	수주 기여도(%)
카타르	265	3.3
UAE	818	10
오만	112	1.4
쿠웨이트	461	5.7
사우디아라비아	1,057	12.9
이라크	351	4.3
바레인	52	0.7
알제리	179	2.2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Ⅲ. 해외건설 시장 환경 변화

1. ESG 및 기후변화 대응

-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인 EU Taxonomy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탄소저감 움직임에 따라, 건설 환경 전반에도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22년 주요 해외건설 기업이 경영 키워드를 ESG·신사업으로 꼽은 만큼, 관련 전담 조직 신설·확대, 친환경 사업 확대를 추진 중임
- 해외시장의 발주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Green EPCM(친환경 설계-저탄소 자재 구매-저에너지 시공·운영) 체제 조기 정착 및 시장 선도가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친환경·저탄소로의 발주 트렌드에 맞는 신재생 강소기업 M&A, 기술제휴 등 친환경사업에 대한 점진적 확대가 요구됨
- 사업 수행시 건설상품 Life cycle 및 전체 Value Chain 관점에서 탄소 감축을 추진
- 협력사와 저탄소 상품의 기획·설계 - 전자재·소재 개발 및 구매 저에너지 시공·운영 등 저탄소 전략을 수립·실행 필요
- 기획·설계 ~ 준공 과정에서는 자재 제조 단계에서 탄소배출 비중이 90%, 준공 ~ 운영·철거 과정에서는 운영단계에서 탄소배출 비중이 70% 수준임

해외건설 주요 유망 사업

산업설비	토목	건축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발전, 에너지저장시설(ESS) 수소 또는 수소-LNG 혼합 연료를 사용하는 수소기반 생산·저장·운송 인프라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 	친환경·차세대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도시철도·버스체계), 지능형교통체계(ITS)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 	도시개발·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빌딩, 패시브주택 온실가스 가스 감축 관련 도시개발, 의료·방역시설
폐기물처리·친환경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플랜트, 친환경 매립 친환경소재 제조 플랜트 	전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지, 비디오, 지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현장의 자산관리 및 하도급관리에 활용 개발도상국 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분야 투자개발형 사업 	디지털·스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센터, 물류시스템

- 특히 구매 단계에서 기존 자재의 대체 상품 개발, 탄소감축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저탄소 전자재 공동 개발 및 구매 비중 확대 필요

Life cycle 및 Value chain 관점의 탄소 감축 전략안

구분	주요 전략
저탄소 전자재 구매 비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자재생산 업체, 탄소감축 기술 보유 업체와 네트워크 강화 저탄소 자재구매 확대(슬래그시멘트, 저탄소콘크리트 등) 고탄소 건설자재의 대체 자재·공법 지속 발굴 협력업체와 탄소감축 자재 개발을 위한 협업·기술개발 지원 탄소감축 기술 보유 기관·벤처기업 등과 협력관계 구축, 지원
탄소배출 저감 건설상품 솔루션 제공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자재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DB 구축 탄소발자국 DB 활용 건설상품 및 생애주기 단계별(운영단계, 철거단계 등) 탄소배출량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탄소저감 건설상품별(저에너지빌딩 등의 투입 자재구축 및 관련 생산업체 네트워크 확보 탄소저감 건설상품의 핵심 설계 역량 사내 보유, 자회사 확보 협력업체와 탄소저감 건설상품 투입 자재 공동 개발, 기술개발 지원

[출처 : 건설산업연구원, ICAK 정책지원센터]

2. 원자력 발전시장 재조명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인 EU Taxonomy에 조건부로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함. 이로 인해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즉, 원자력 발전에 참여하는 건설사 및 금융기관은 ESG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원전 사업에 대한 추진력도 확대될 전망
- The economist에 따르면, 원전 수출 5대 국가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한국, 미국으로 나타남
- 미국이 보유한 원전 설계 관련 원천기술과 한국이 가진 원전 공정 관리 및 건설·기계 분야가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원전 수출 5대 국가 현황



- 외교, 방산, 안보, 경제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요구되며, 최근 신규 원전 발주 특성 감안 시 대규모 자금조달 및 원천기술 보유 기업과의 협업도 필요. 최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방한해 한국과의 제3국 진출 관련 협업 분야를 조사한 바 있음('22.6.8)
-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관련하여 EPCF, PPP 구조 등의 형태로 금융을 수반할 경우 수은, 무보 등을 통한 대규모 ECA 자금, 정책펀드 지원도 요구됨
- 미국 EIA에 따르면, 중동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은 '25년까지 현재의 6배 규모인 410억 Kwh로 급증할 전망. '30년까지는 10배 수준인 580억 Kwh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중동 원전 시장 사업기회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됨

중동 원전 발전용량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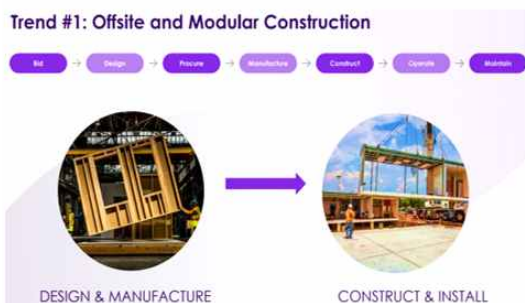
구분	발전용량(kWh)
'20	60
'25	410
'30	580
'35	730
'40	830

[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aily.com/NewsView/269UHO2GNO>), EIA2022.8]

3. Digital Twin 등 신기술 적용 Trend

- 글로벌컨설팅기업 McKinsey에 따르면, 건설업의 이익률은 4.4% 수준으로 제조업, IT 기술업 등 17개 산업군 중 15위에 불과함
- 건설업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수익성·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건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3가지 방식을 향후 5년 내에 시도하고 정착해야 함
- **(Trend 1. Offsite·Modular Construction)** 향후 5년 내에 전 현장의 50%는 Offsite·Modular Construction·3D printing을 통한 공기 단축 및 품질 향상을 이뤄야 함
- 글로벌 전력기업 E&I Engineering Group은 방식의 전환 (Design & Manufacture → Construct & Install)을 통해 현장 인력의 효율적 배치, 안전사고 감소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모듈러 공법을 통해 현장 작업 속도 60% 향상, 리프트 작업량(Lift Operation) 77% 감소를 통한 현장 안전도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남

Trend 1. Offsite·Modular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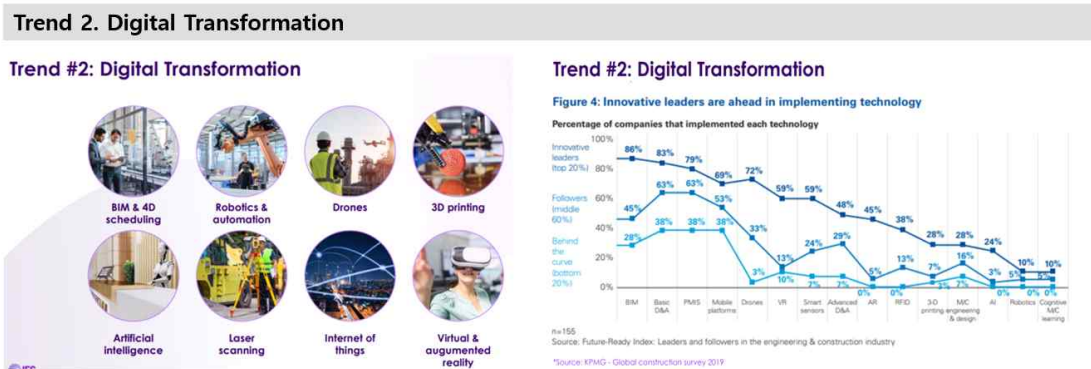


[출처 : IFS, ENR]

Trend #1: Offsite and Modular Construction Customer Example: E&I Engineering Group



- (Trend 2. Digital Twin 등 Digital Transformation) 건설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임. 특히 BIM, Drone, VR, Robotics 기술과 건설의 융복합은 생산성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음
- KPMG에 따르면, 혁신 리더(Top 20%)는 BIM(86%), Drone(72%), VR(59%), Robotics(10%) 등 스마트기술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반면 그 외 80% 수준의 기업들은 이러한 스마트 기술 적용에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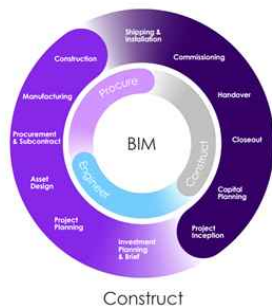
[출처 : IFS, ENR]

VR & 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M 모델 기반의 가상 건축물 체험을 통해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발주자 및 최종 사용자의 사업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음 	Modular 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M으로 설계된 구성요소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공장에서 자동 생산 → 현장은 조립 위주 ● 중국 Broad Group China사는 사전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해 19일만에 57층 빌딩 완공 	3D Prin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러 공법과 연계 또는 시설물을 현장에서 직접 프린팅 ● MX3D사는 암스테르담에 운하를 잇는 금속 재질의 7.3m 다리를 3D 프린팅을 이용해 건설
지능형 건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matsu는 지능형 건설장비를 통해 센서와 통신 단말을 통해 건설기계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Dr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 비디오, 지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현장의 자산관리 및 하도급관리에 활용 ● 드론 기술로 대체 가능한 인프라 분야 금액은 452억불 수준임 	BI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M은 건설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생산성 개선에 효과적인 플랫폼 ● 사업 정보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참여자간의 협업 체계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Trend 3. Full Asset Lifecycle Support) 기존 EPC 개념보다 확대된 전 생애주기에 대한 BIM 적용·활용이 요구됨
- 완공 후 운영&관리(O&M)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 및 피드백이 필요함. 이를 통해 적시 유지보수를 통해 성능 유지 및 향상을 통한 사업 관리가 주목을 받고 있음
- Jacobs는 상하수도 사업에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물 인프라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물론 의사결정 모듈(Business Decision Module) 및 상황 인식 모듈(Situational Awareness Module)을 통해 사전 점검·유지보수를 적시에 하고 있음

Trend 3. Full Asset Lifecycle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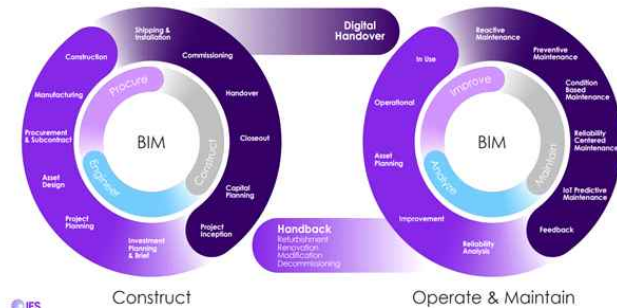
Construction Project Lifecycle



Construct

IFS
[출처 : IFS, ENR]

Trend #3: Full Asset Lifecycle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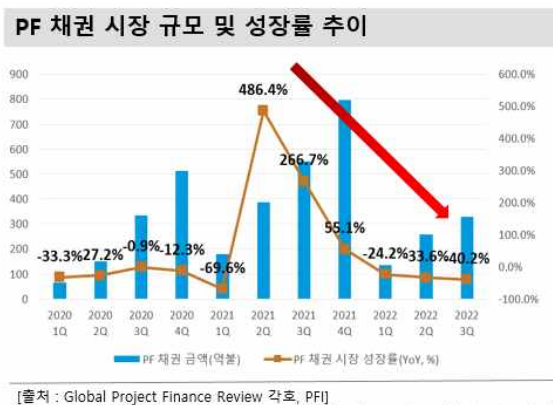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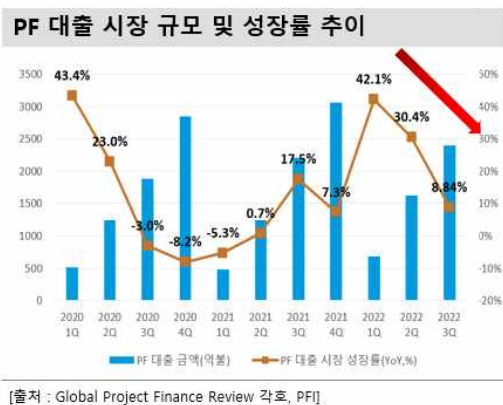
Construct

Operate & Maintain

4. 해외 PF 시장 동향

- '22년 3분기까지 PF 시장(대출+채권) 규모는 2,730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즉, 코로나19 이후 점진적 성장을 이어가던 PF 시장이 주요국 금리 인상 및 역기저효과에 따라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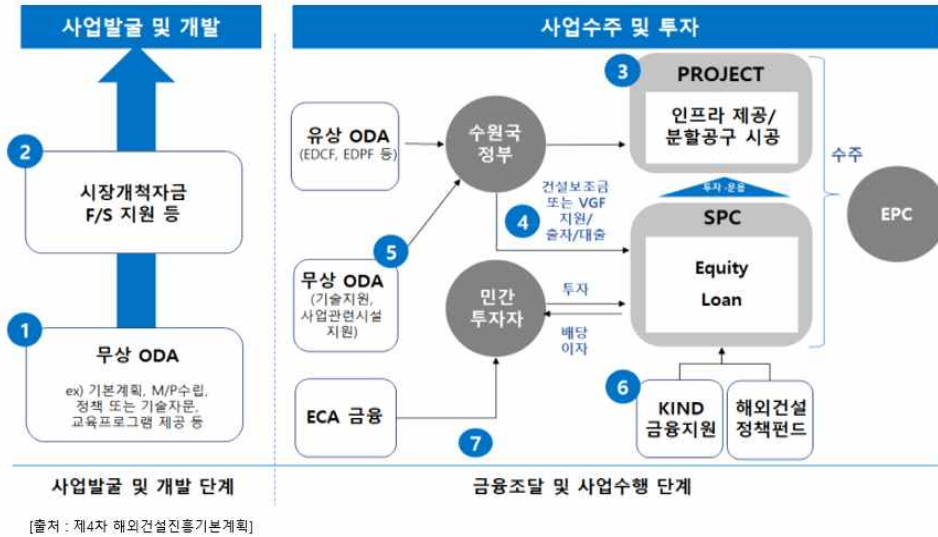
- PF 대출 규모는 2,401억불로 오일&가스, 전자통신 공중 관련 프로젝트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8.84% 증가했으나, 성장률은 점차 감소 중
- '22년 PF 대출 시장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42.1%(1분기)
- 30.4%(2분기) - 8.84%(3분기)
- PF 채권 규모는 329억불로 전년동기대비 40.2%가 감소함
- '22년 PF 채권 시장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24.2%(1분기)
- -33.6%(2분기) - -40.2%(3분기)



- '신규 사업 발굴'부터 '운영·관리' 등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 수단을 연계한 복합금융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유·무상 ODA, 시장개척사업, 정책펀드, ECA 금융 등 각 금융별 특성을 고려한 복합금융을 통해 투자개발형사업의 사업성 제고
- 복합금융형태 투자 사례(미얀마 KMIC 사업) : 무상 ODA

(KSP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를 통한 사업 기획·발굴, 유상 ODA(인프라 시설 지원)

주요 지원정책과 결합한 복합금융 구조(예시)



구분	사업 단계별 지원사항
①	무상 ODA를 통한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제안
②	시장개척지원사업 Pre F/S 지원을 통한 기본설계, 실사, F/S 등 실시
③	EDCF 등을 통해 사업 기반시설·분할공구 시공을 통한 핵심사업 수주 기반 조성
④	수원국 정부 앞 유상 ODA 지원 후, 그 정부는 SPC에 보조금 또는 출자 실시
⑤	무상 ODA를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 및 사업관련 추가시설 지원
⑥	KIND 금융지원 및 해외건설정책펀드를 통한 자본금 및 차입금 조달 지원
⑦	해외금융기관 앞 SPC의 채무상환불이행 위험 보증

[출처 :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IV.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 원팀코리아 활성화 전략 수립부터 사업 개발, 금융 지원 등 사업 전 단계별 지원방안 수립·운영

주요 핵심 프로젝트		
사업명	규모(억불)	사업내용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신도시	5,000	· 사우디~이집트~요르단에 걸쳐 대규모 산업·주거특구 건설 (주요 사업 분리발주)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358	· 균형 발전 위해 보르네오섬 동부 칼리만탄주 발리파판 외곽 지역으로 수도 이전
폴란드 신공항 건설	74	· 기존 국제공항(바르샤바 쇼팽)을 대체하는 공항 및 철도 복합 교통허브 건설
쿠웨이트 알주르 석유화학단지 건설	100	· 알주르 지역에 설치되는 신규 석유화학 복합단지

[출처 :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

단계	항목	주요 내용
기획	전략	· 전방위적 수주 지원 전략 수립
사업개발	정보	· 인프라협력센터, 플랜트수주지원센터를 통한 정보 수집
	사업화	· 시장개척지원(수주활동, Pre F/S) 및 F/S 지원
	사업권	· G2G 협력 사업 관련 우선사업권 확보
	외교	· 정부 주도의 수주지원단 파견
계약	계약	· G2G 계약 등
금융	금융	· GIF-PIS 펀드, EDCF, EDPF 등을 패키지로 연계
인센티브	보상	· 공기업경영평가 및 건설사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
	면책	· 투자 손실 관련 공기업 담당자 면책조항 마련 검토

[출처 :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2.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

- 해외건설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건설사의 발전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동반되어야 함
- 민간부문이 해외건설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선순환 Cycle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